

성만찬에 대한 한 문장 엘리베이터 스피치

By John D. Witvliet

April 13, 2015



기념: 불완전한 진실

필자는 매 년, 우리 대학교와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이 여덟, 아홉살 무렵 그들 교회의 성만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 예외 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글로 적어 놓은 예전이나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우 유사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예배에서 찬양 리더는 아마 이렇게 말하며 시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성만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찬 테이블에서 목사는 아마도 제정사를 봉독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좋은 뜻을 담은 문장은 진리 중에서 한 부분만을 전달한다. 즉, 우리가 모인 것은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과 “그분의 죽음을 선포”(이 두 구절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합쳐지는지를 주목하는 것을 통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만찬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기념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성만찬은 또한 예수님과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자,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나아가 성만찬은 단지

기념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이다. 우리가 요약한 그 한 문장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빠져있다.

- But the table is about much more than this. In addition to **remembering**, the Lord's Supper is also about **communing** with Jesus and each other, **renewing** God's covenantal vows to us, **being fed** by Jesus, and experiencing **a foretaste** of the heavenly feast of the kingdom. Further, the Lord's Supper is not just an occasion for the human activity of remembering. It is also an occasion for **God's active work** to **nourish** and **strengthen** our faith. Our single sentence summaries miss all that. -

개혁 교회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문장이 적어도 츠빙글리 Zwingli's 가 가르친 성찬식의 일부와 일치하고 있는 반면, 칼빈의 가르침과 벨직신앙고백서 Heidelberg Catechism, 츠빙글리의 기념설 Zwingli's memorialism 을 명백히 거부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서 Belgic Confession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일반적인 한 문장이 선의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성찬으로 나아오는 “덜 성격적” (그리고 또한 “덜 개혁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매우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함은 예수님이 목자이시지만 결코 예수님이 왕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결코 희생의 선물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일과 같다.

불완전한 신학의 목회적인 의미

이 모든 것들은 목회적으로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데 대한 안목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목회적 문제점이라는 씨앗을 심는다. 이 문제점은 성만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결국 우리 스스로의 경건과 우리 스스로의 선명한 기억력에 의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만 시간을 거슬러 여행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골 3), “너희의 마음을 주께 드리라”, 또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균형이 잘 잡힌 형식을 사용하던가 이런 여러 의미들을 상기하는 찬양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만찬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러나 필자 역시 수백개의 교회들이 변화를 추구하다가 제대로 균형잡힌 형식을 버리고, 앞서 말한 그 한 문장의 설명에 많은 무게를 두는 성만찬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이것은 마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허둥지둥 축하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해 치울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을 놓치고 만다.

그때까지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 문장의 “엘리베이터 스피치(elevator speech)”를 향상 시키기 위해 우리의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성만찬을 아이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훌륭한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만찬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의 창의력을 십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엘리베이터 스피치

1970 년대, 지혜로운 목회적 역사가이자 예배 신학자였던 하워드 해그먼 Howard Hageman 은 미국 개혁 교회 (RCA)의 성만찬 예전을 편집 및 수정하는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은 그 형식을 더욱 간결하고 깨달음이 있지만 덜 혼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 중의 하나로 그는 간결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문구를 만들었다. “... 기념, 교제, 그리고 희망의 식사 ...a meal of remembrance, communion, and hope .” 필자가 참석해온 RCA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들에서는 거의 매번 이 문구로 성찬식을 시작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여기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했든지 관계없이 말이다.

What a beautiful phrase: a “meal of remembrance, communion, and hope.”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구인가?: “기념, 교제, 그리고 희망의 식사.”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게 “입에 착 감긴다” - 그리고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적인 여러 면을 열어주기 시작한다. 이 세 면이 가진 각각의 의미를 더욱 연구 -간략하게나마- 하도록 초청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구이다.

이 문구가 마지막 단어일 필요는 없다. 아마도 여러분은 성만찬에 관한 보다 많은 의미들을 한 문장에 집어 넣기 위해 분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가장 최고의 한 문장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원한다. 언젠가, 그들은 아마도 그들 교회의 여덟, 아홉살 아이들이 성만찬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할 것이다.

여러분도 참여하기 원한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ReformedWorship@crcna.org